

자체 중간평가

☆ 심

중간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우리들의
자체 중간 평가 이야기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대한 '놀라움'
기약 없는 잠정 연기에 대한 '화남'
이유를 알지만 화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도 우리끼리만의 돌아볼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함'

라운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5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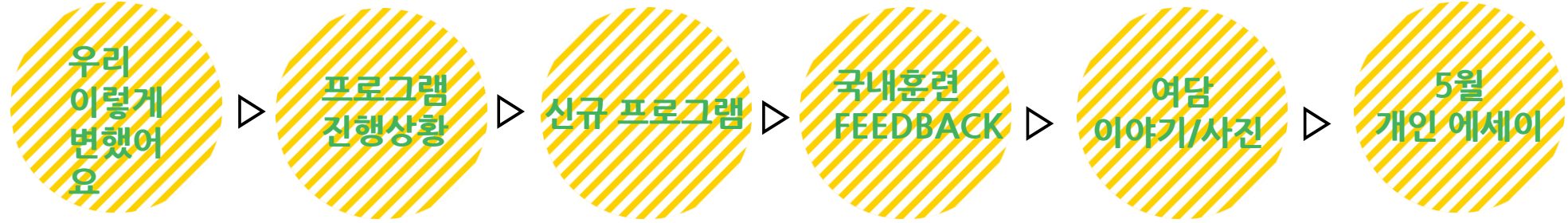
WARNING

이대론 가만이 있을 수는 없다. 3개월 동안 공공 숨겨왔던 이야기들. 자체 중간평가를 통해 한 박자 쉬며 그 이야기들을 풀어 헤친다. 우리들의 변화, 현지주민에게 느꼈던 감정들까지. 그 뻔한 예상과는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에 적잖이 놀랄지도 모른다. 분노, 우울, 행복, 쉬고 싶음, 향수병, 감동 등 총 45가지 감정이 본 보고서에 스며있다.

이에 대해 스포일러다, 반칙이다, 자극적이다 하는 사람들 아일킬유. 본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착한 사람들은 눈물을 멈추고 메시지 한 통씩 보내길 바란다.

5월 칼라팀 보고서
자체 중간평가 : 씬

(목차)



5월의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Excursion 2. 콜롬보로 이동 (비자)	2 1. 비자 연장	3
4	5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영어 3. 도서관에 신문 들여옴	6 1. 아띠 스쿨 - 태권무 2. 우리 집 망고 나무에서 첫 망고 발견!	7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영어	8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예체능	9 1. 타밀어 교실 2. 칠드런 클럽	10
11 1. 아를 셀버, 레한과 해변 산책	12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영어	13 1. Youth club 시작 2. 아띠 스쿨 - 태권무	14 1. 배삭 뽀야 데이 2. 푸시팜 엄마네랑 여행 3. 아띠 스쿨 -영어	15 1. 배삭 뽀야 데이 2. 현근이형 2차 방문 3. 아띠 스쿨 -예체능	16 1. 타밀어 교실 2. 칠드런 클럽	17 1. K.U.G.A (Kallar undergraduate association) 행사 2. 마르다무네, 드럼통 구합(350PPM 관련) 3. 할머니 74번째 생신 잔치
18 1. 타밀어 교실 2. 힌두 축제 3. 축제에서 Library fundraising with youth club member 4. 아띠 스쿨 - 영어	19 1. 타밀어 교실 2. 힌두 축제 3. 축제에서 Library fundraising with youth club member 4. 아띠 스쿨 - 영어	20 1.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통 실험 시작 2. 아띠 스쿨 - 태권무 3. 프리스쿨 선생님 수자네 집 방문	21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예체능	22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예체능	23 1. 타밀어 교실 2. 칠드런 클럽	24 1. 꽃 가격 조사하러 바티칼로아 방문(350PPM)
25 1. 머빈 생일	26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영어	27 1. 바티칼로아 도서관 방문 2. 아띠 스쿨 - 태권무	28 1. 타밀어 교실 2. 아띠 스쿨 - 영어	29 1. 바티칼로아 대학생 수가 타 우리 집 방문 2. 아띠 스쿨 - 예체능	30 1. 타밀어 교실 2. 칠드런 클럽	31 1. 음식물 쓰레기에 재 뿌림 2. 쌀뜨물 효소 만듦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변화

우리 이렇게 변했어요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 팀의 변화

(취업 단원의 변화)

소중한 것이 소중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산다.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취미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한다. 마치 SPA 브랜드들의 옷처럼 획일화 되어가는 사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지고 있다. 나 또한 철마다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듯 허겁지겁 앞만 보며 살아왔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발만 담그기에 급급했고, 결국엔 세트마다 다른 나의 모습들이 가득 메어버렸다.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해왔었다.

스리랑카에서 지난 3개월간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해왔다. 나를 되돌아보니 미처 몰랐던 소중함이 떠올랐다. 그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는 가족이 있었기에 라온아띠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고 이제는 당연한 것인 양 되어 버렸다. 잠시 연락도 안 되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다. 이랬던 내 삶이 칼라마에서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며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은 나를 붉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다. 얼마 전 새로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 현재의 가족과 미래의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내가 상 상하는 집을 만들기로 말이다.

칼라는 나에게 언제나 잊혀졌던 교훈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누군가에는 가족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리고 들판에 핀 꽃까지도. 지금까지 나의 잣대로 타인의 소중한 것을 무시했음을 반성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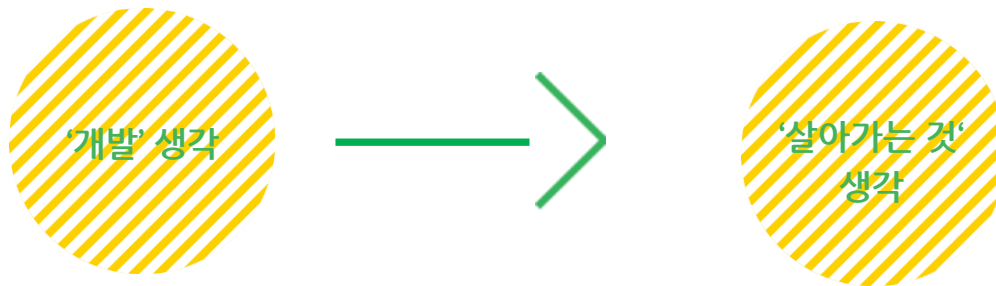
지난 3개월 간의 변화
칼라에서의 변화

(애리 단원의 변화)

‘사는 것에 대한 고민’

라온아띠 자기소개서를 쓰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아마 개발공부에 더 욕심이 나서였을 것이다. 개발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같은 관심분야인 사람들을 만나도 무엇인지 모르는 같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개발’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국내훈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사고했다.

3월 한 달 동안 이 키워드들과 내 라온아띠 생활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했다. 칼라를 알아가면 갈수록 쓰나미 이후에 진행되었던 개발사업들이 현재에는 어떤 상황인지 유심히 보았던 것 같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잊음’은 좋은 현상이다. 개발을 생각하기 보다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개발분야를 업으로 삼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앞으로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되어도, 크게 그것에 동요되지 않을 만한 대화들과 생각들을 하고 살아온 3개월이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 달려왔었고, 숨이 차고 목이 마른 데 그것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대학생살이 그렇게 재미나진 않았다. 결국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가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법인데, 어리석게도 대학이라는 곳이 당연히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 기대한 결과였다. 이곳에서 내가 만약 기대한 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또다시 당혹버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분명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못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와중에 내 자신의 이모저모를 정립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사소한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 행복하고도 어려운 고민을 매번 마주하고 있다.



(애리 단원의 변화)

‘적응’

불편함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이라면 유치원에서 쓰듯한 아이들용 가위가 일상 가위인 이곳의 가위로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종이를 자르고 있고, 자전거에는 사람도 못 태우고 다녔었는데 아띠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연장들을 한 번에 싣고 다닌다. 언제인지 모를 시점부터 현지물가에 완벽히 적응해 한국에서는 싼 가격이지만 그것을 떠올리기 전부터 손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챙겨주는 것 좋아하는 이곳 문화에 한국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 더치페이로 운운하던 내가 이리저리 빌붙어 밥과 간식을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다. 3월 4월에는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화부터 났지만, 이제는 코디네이터가 차라리 우리 일을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4명에서 뿔뿔 뿔 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끼리 일을 하면 일이 오히려 더더지거나 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알바처럼 일하는 코디네이터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코디네이터가 도와주면 더더지거나 틀어지는 것이 방지된다는 가설은 이미 여러 사건들로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욕구불만’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몰랐었던 나의 식욕을 재발견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단점은 ‘먹는 재미가 없다.’ 음식의 가짓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고, 종교의 영향으로 먹지 않는 고기가 있어 고기를 먹기만 하면 닭고기다. 이 닭고기마저도 매일 사먹을 수는 없어, 350PPM의 MEATLESS DAY를 따로 정하기 민망할 정도로 강제채식을 하고 있다. 몰랐었는데, 항상 어느 곳이나 여행을 가면 볼거리만큼이나 먹거리에 신경을 썼던 것 같다. 다른 곳에서는 못 먹어볼 음식을 다 먹는 것이 목표였던 때도 있었다. 스리랑카는 이제 여행을 어느 곳을 가든, 먹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다. 다 먹어본 그 맛. 먹어본 그 음식 종류. 음식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더 맛있고 맛없고를 판단하겠지만, 새로운 음식이 없다는 게 가끔은 지루하게 만든다. 쿠킹클래스를 진행해주었던 옆집 박산디 엄마의 음식은 3월까지만 해도 스리랑카 음식 중에서 맛있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평균치의 가정집 음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맛들도 충분히 경험한 터라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간혹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맛 평가까지 할 정도니, 음식에 있어서는 한국에 빨리 가고 싶을 따름이다.



(애리 단원의 변화)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린다'

초등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귀뚫기 영어학원'이 생각나는 시점이다. 외국어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 실력을 기르자던 이 학원으로 친구들이 하도 많이 가서 기억나는데, 그 법칙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3월에 비해 타밀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아주 조금 나아진 것과 별개로 이제는 눈치코치로 사람들의 상황과 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조금 알아듣겠으니 더 궁금해지는 게 당연지사다. 어떤 이가 누군가의 이모, 삼촌, 할머니인 놀라운 친족인맥, 쓰나미 이후 진행되었던 개발사업 이야기, 칼라에서의 연애문제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점점 더 궁금해져만 갔다.

사례 1) 칼라라는 지역에 생긴 크나큰 변화의 원인은 당연 쓰나미라 할 것이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사람들의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와 닿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쓰나미로 인해 치워지지 않은 잔해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선불리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쓰나미 이후 마을에 들어왔다 나간 NGO 등 여러 기관들이 얼마나 이 마을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쓰나미 이후, 각 가구별로 옥외 화장실을 지어준 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똑 같은 사업을 진행한 단체가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NO PROBLEM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파악하기란 어렵지만(그렇다. 우리도 이 말에 데였다.), 한 가구에 옥외화장실이 두 개나 있고, 그 위치 또한 어정쩡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모든 것에 좋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이곳 마을 사람들의 경향과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몇몇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

사례 2) 3월, 칼라를 알아가기 위해 만났던 이곳의 동장 격인 GS는 청소년의 연애문제를 꼽았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연애문제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이 음지로 내몰려 연애를 몰래 하는 것 같았다. 한 아이가 아띠스쿨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말하는 마을이 칼라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꽃기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적는 아띠스쿨의 학부모들의 나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즉 아이들의 나이로 대충 어림잡았을 때 청소년기의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다반사였다. 연애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음지로 내모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곳의 연애 및 결혼 문화가 궁금할 뿐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지나쳤던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청맹과니
&
귀머거리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린다

(마로 단원의 변화)

익숙함

맞지 않는 새 옷을 입은 듯 불편했었다. 새 옷이라 좋긴 했지만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순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길 들었는지 편하다. 새 옷의 두근거림은 사라졌지만 내 옷이라는 느낌이 들어 좋다.

처음에는 '새로움'이 좋았다. 현지에 많이 익숙해진 지금은 '존재 자체'가 좋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얻어 먹는 것이 부담이 됐었다.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먹고 또 엄청 많이, 잘 차려주셨다. 어느 정도 먹고 놀아서 쉬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을 때 나올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없어졌다. 우리만 먼저 먹는 문화도 익숙해졌고 노는 것도 친구네서 노는 것처럼 즐겁고 편해졌기 때문에 자리 뜨는 것도 부담이 없어졌다.

5개월이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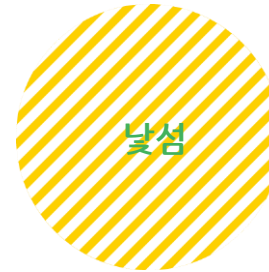
처음 왔을 때는 5개월이 엄청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 짧다. 너무 짧다. 5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전 기수들의 사업을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제대로 하기에는 찾아내기도 어렵고 제대로 시작하기도 어려운 시간 같다. 5개월이란 시간은 뭔가 하려 하면 가야 할 시간이 오는 것 같다.

아이들, 정

처음에는 정이 잘 안 가던 몇몇 애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정이 간다. 계속 와주는 고마움 때문인가? 늘 오던 애가 안 오면 괜스레 걱정되고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게 된다.

일 처리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일 처리가 우리랑은 안 맞았다. 특히 코디의 일 처리 때문에 난감한 경우도 많아서 화가 났던 적도 적지 않았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젠 그러려니 한다. 그리고 일 처리를 부탁할 때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 우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락을 부탁해 놓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락을 하기도 했다.



낙심



익숙함



5개월 길다



5개월 짧다



일 처리
답답, 짜증



내려 놓음

기존 프로그램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 팀의 기존 프로그램

(Atti School)

〈Atti School〉 -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영어, 예체능, 태권무 수업 목적

1.공교육과 비싼 사교육의 한계

스리랑카에서는(적어도 칼라에서는)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빼먹는 아이들도 많고 몇몇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하고 방과 후에 개인 교실을 열어서 돈을 번다고 한다.또 학교에 예체능 수업이 없어서 아이들이 몸을 사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하지 않다.그리고 칼라에는 사교육 기관이 엄청 많다. 집에서, 공터에 책걸상을 가져다 놓고 수업을 진행한다.아이들도 수업의 연속이다. 이런 공교육과 넘쳐나는 사교육의 한계를 넘어보려 한다.

2.아이들이 YMCA 장소에 친숙 + YMCA의 발전

YMCA가 아직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할만한 시설이라고는 놀이터와 도서관, 헬스장이 있지만 극소수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아이들이 YMCA에 자주 와서 익숙해지고 향후 YMCA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거부감이 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공교육과 사교육
의 한계



YMCA장소에
친숙, 발전



사진. 좌에서 우로

1. Atti School 영어 수업 시간.야외에서 영어 동요를 배우는 중 이다.
2. Atti School 미술 수업 데칼코마니를 할 때 쓸 물감 주머니를 준비하며

(Atti School)

진행 상황

3월 말 등하교 시간과 아침 조회시간에 Kallar의 모든 학교를 돌며 홍보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쓰나미 아파트를 돌며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홍보자료들을 나눠주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90여명의 아이들이 지원하고 와서 분반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4시이후 시간대는 너무 늦어서 부모님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와 4월 초에는 쉬는 날도 많고 과외들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해서 애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말을 코디를 통해 듣고 우선 일단은 그냥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점점 줄던 아이들은 4월 새해를 기점으로 30여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4월 여행을 기점으로 15명 정도 가량의 아이들이 오고 있다. 영어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위주로 진행 중이며, 태권무는 7월 말쯤 학예회 공연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 중이다. 미술, 음악, 체육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들이라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 미, 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 기존 아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Future Plan 향후 계획

1. 아이들과 YMCA 벽화 작업

매주 목요일 미술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활동을 매우 좋아한다. Kallar YMCA 건물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만한 디자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벽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벽화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호감을 갖고 다가올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벽화를 그리면서 YMCA에 소속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려 한다. 또 Children Club 시 쓰기 시간에 했던 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디자인하고 YMCA 외벽을 아이들과 칠하려고 한다.

2. 7월 말 Atti School 학예회

우리는 태권무 시연, 미술수업 작품 전시회, 활동 영상 등을 이용해 7월 말 부모님, 친구들을 초청하는 작은 규모의 학예회를 할 예정이다. 학예회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자신의 작품과 공연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진. 위에서 아래로
 1. 영어 등요 시간
 2. 미술 수업. 데칼코마니
 3. 체육 수업, 축구

마다호세프:너 생각은 뭐니?(대화하는 도서관 만들기)

지난 9기와 10기가 부단히 노력하여 만든 결실인 도서관을 3월 24일 도서관사서 아를셀비 채용으로 두달여만에 재오픈을 하였다. 사교육문제가 심각하고, 페리아칼라 내의 children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도서관 운영은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아띠에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스템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속적인 요구로 도서관 사서채용에 성공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서관예산 책정을 Board Meeting과 Committee Meeting에 참여해 요구하였다. 끈질긴 요구에도 스리랑카 연맹 핑계로 예산책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팅을 통해 페리아칼라에서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시켰다. 향후 계획으로는 YMCA 도서관 멤버십을 통한 대출·반납 시스템 확충, 페리아칼라 상점과 제휴업체 맺기, 도서관 프로그램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왜 어린이 도서관인가?

칼라Y마당에 위치한 놀이터가 도서관과 인접하여 기존의 도서관의 형태로서는 이용자에게 큰 애로사항이 될 거란 팀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마침 교육방송 다큐中 이스라엘과 미국의 한 대학의 교육방식에 대한 방송을 시청하였다. 이 교육방식은 상대방과 토론하고 서로에게 책 읽어 주는 교육법이 더욱 오랜 장기기억을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상의 문제와 도서관형태의 새로운 시도라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no silent yes loud를 페리아칼라 도서관에 적용시켰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페리아칼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보고 있다.

기본 프로그램

03/24 사서채용/ 도서관오픈

04/08~ 도서관 책정리

05/05 신문 게재
05/19 도서관 fundraising

06/02~ 5개 학교 선생님 추천도서목록 받음



1

1. 책을 읽으며 즐거워 하고 있는 아이들. 그러나 뒷편 빈 책꽂이가 도움의 절실함과 우리 모두의 노력을 대변해주고 있다.



2

2. 학부모를 위해 일반신문을 비치해 두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였다.



3

3. 도서관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축제 기간동안 Fundraising을 진행하였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신규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 팀의 신규 프로그램

(350 PPM)

신규 프로그램

Root Cause

1. 인식의 문제.

먼저 기본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서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어른들의 행동에 아들 역시 따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 것에 대한 소유가 강해 자기 집 앞은 깨끗하게 쓰는 반면 집 앞이 아닌 곳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동네라는 소속감의 부재,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심의 팽배를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화학물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들이 몸에 해롭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좋은 비료로 만들 수 있다는 등 처리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 음식물 쓰레기 문제.

칼라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의 식습관을 볼 때 음식쓰레기의 배출량은 전체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마땅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음식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뒤섞여 환경오염물질을 머금게 된다. 이러한 음식쓰레기는 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개나 까마귀, 그리고 소 등을 병들게 하고 이것을 먹는 마지막 포식자 단계인 인간에게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즉, 칼라지역에서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미비하지만, 환경오염과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Goal

인식의 변화이다. 내 집과 내 땅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칼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소속감이 생기기 바란다. 이를 통해 칼라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음식물 쓰레기의 비료화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단지 물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료라는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를 바란다.

Methods

① Gardening ② 음식물 자원활용

1.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2. 가드닝에 쓰일 꽃을 페리아칼라 주민들로부터 기부 받아 관리 집앞마당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1



2



(350 PPM)

문고프로젝트

왜 Gardening인가?

칼라마을을 언뜻 보면 마을 어디에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마을이라 느낄 것이다. 마일 아침 앞마당을 쓸고 있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350PPM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아따들이 한달여쯤 지내며 마을전체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라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즉 앞서 언급한 이기심의 팽배, 나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인해 해변 근처 운동장 한 칸에 덤프사이트가 생성되어 있었다. 족히 100m는 되어 보이는 길이에 술병, 아이들 옷, 고장 난 리모컨까지 온갖 생활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에 아따들은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는 모토의 가드닝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이 피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페리아칼라 지역 스포츠클럽, 학교, 어머니클럽 등과 연계하여 칼라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라는 도구를 통해 칼라주민에 의해 버려진 땅을 다시 칼라주민에 의해 되살리려 하는 것이다. 아따들은 이러한 의미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꽃 기부를 고안해냈다. 이러한 실천은 땅을 땅답게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즉 토지소유권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함으로써 방치된 땅을 되찾고 그 땅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한다.

왜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자원화방안'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본 칼라의 쓰레기 CIRCLE의 근원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해결방안이 쓰레기피해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따들은 5월 20일 드럼통을 이용한 Composting작업을 들어갔다. 또한 5월31일부터 쌀뜨물을 이용한 효소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험하고 있다.

실험의 결과로 조금씩 Composting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급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1. 운동장 띠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
- 2. 우리의 무기인 꽃이다. 싱그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으면 좋겠다.



1

2

(Youth meeting)

청년들의 어울림 부재

일주일 동안 대자보와 전단지를 통해 5월 13일 공식적인 Youth Meeting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까지(6월 1일자) 2번의 모임활동이 있었으며 생각나누기와 도서관 Fundraising을 실시하였다. 지난 한 달간 회의를 통해 Youth Meeting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우선 지역 내 청년모임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을 Y로 불러 모으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step by step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와 칼라Y의 소속을 강조하기 보단 참여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즉 어우러지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7일 부터 19일간 열렸던 힌두축제에서 도서관 기금마련 행사를 주최하였다.. 지역훈련에서 배운 풍선 만들기과 페이스페인팅을 이용해 지역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들 까지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Youth Activity 측면에서도 재미와 함께 큰 자신감을 얻는 수확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점

- 홍보 과정에서 Youth Meeting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 타밀어전단지가 아닌 영어전단지 사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상당부분이 읽을 수 없었다.
- Youth Member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Youth Member들과 Children Member 간의 연계활동 필요하다.



1. 첫 Youth Meeting을 가진 뒤 단체 사진촬영을 하였다.
2. 첫 Youth Meeting 프로젝트로 힌두축제기간을 맞아 도서관 Fundraising을 실시하였다.

(Committee meeting)

지지기반 획득

우리는 별다른 조언 없이 우리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이전 기수들 때에는 있던 Committee meeting이 우리 기수 때는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가 코그랄라지 사무총장님에게 4월말 처음 듣게 되었고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첫 committee meeting을 가질 수 있었다. 첫 미팅 때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상황, 향후 계획을 말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meeting을 가지기로 하였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현지인들의 평가와 피드백, committee memeber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committee meeting의 시작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첫 Committee meeting 때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여담

Feed back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 팀의 Feed back

(전체 훈련)

‘고민하는 습관’

단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매 강의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고,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답 없는 고민들을 마주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강렬했던 인상과 고민만 기억에 남는데, 답 없었던 고민들이 답은 못 찾겠지만(답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이곳에서 점차 이해되어가고 있다. 간혹 어떤 강의는 현지에서의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전체 훈련의 목적 자체가 ‘고민하게 만들기’였다면 나 하나를 표본으로 봤을 때 달성했다고 본다. 이전에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내가 고민해봤자 바뀌지 않는 현실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다. 전체훈련 덕분에 고민하는 습관이 생겨났고, 나아가 이전에는 부딪혀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부딪히려고 한다.

‘한국과 칼라의 비교’

전체훈련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당연히 ‘무빙스쿨’이다. 무빙스쿨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했던 터라 정말 마을에 속한 지금 이곳의 마을 공동체란 무엇이며, 무엇이 충분하고 부족한지 고민하게 된다. 칼라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힌두교와 기독교, 천주교, 크리켓 클럽, 그리고 지역 여성 단체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와 공통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을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라 봤을 때, 이 모든 단체들을 한 데 모이게 하고 아우르게 하는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품애의 경우, 서촌이라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은 모임들을 한 데 모아 유기적으로 마을이 굴러가게 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칼라는 행정 구획상으로 이름 붙여진 마을일 뿐 지향해야 할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다. 만약 무빙스쿨이 교육과정에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나 싶다.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내 교육 내용 중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게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와서 해보니 우리가 꿈꾸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 주도적으로 하려고 미팅을 잡아서 제안을 하려고 해도 미팅에 아무도 오지 않고, 분명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려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쳤다. 다름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게 만드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칼라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모른다는 생각에, 5개월 안에 뭔가 이뤄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전체 훈련)

‘인류 보편적 감수성’

칼라생활 3개월에 접어들자 나와 나라는 관계가 아닌 우리라는 관계에 좀 더 익숙해졌다. 생김새에서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차이까지 다른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칼라주민-라온아띠의 공통의 노력을 통해 조금 더 공통분모가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국내훈련에서 배운 개념을 잠시 언급하자면 ‘아시아적 감수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짧은 문장으로 개념정리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시아적 감수성’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아시아라고 불리는 것이 서구열강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만들어진 비서구지역인 것이다. 어쩌면 앞서 밝힌 우리라는 느껴지는 이 감정들을 ‘아시아적 감수성’으로 명명하기에는 모순이 있는 듯하다. 아시아로 통합하는 것이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아시아적 감수성’ 대신 전 지구적인 인류보편의 감수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주장한다. 칼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선교사님이나 아프리카에 파견된 코카카단원, 그리고 한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스리랑카에서 5개월을 보내고 있는 라온아띠 청년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들이라 볼 수 있다. 라온아띠가 아시아 국가에만 파견된다고 해도 아시아적인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이라는 것이다. 즉 ‘아시아적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개념으로서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의 하위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감수성’이라는 개념 정의를 통해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는 것이 라온아띠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통해 지난 3개월동안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라온아띠스럽지 못한 내가 라온아띠로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지역훈련)

전체훈련이 생각하기 훈련이었다면, 지역훈련은 다소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었었다. 어떻게 보면 현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몇 가지 수업은 이곳에서 그 동안 적용조차 되지 않았다. 풍선아트나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 도서관 기금을 아띠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동교육기법와 그에 따른 직접 아이들을 접했던 실습은 이곳의 아이들을 대할 때 예방접종을 맞은 듯 도움이 되었다. 태권무는 직접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지역 훈련의 필수적인 과정이어야만 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봤을 때, 언어교육기법, 체육교육기법은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마술수업 역시 말을 섞어야 하는 언어적 마술들을 배웠기 때문에 부족한 타밀어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의견은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아트 역시 만약 도서관 기금 마련 행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쓰여졌을지 몰라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리랑카 현지교육 이 곳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배우기는 좋았으나, 가장 중요한 타밀어를 배우기에는 역부족이라 만약 다음 기수 역시 스리랑카 칼라로 파견된다면 좋은 영어-타밀어 책이 있으니 국내훈련기간과 귀국 전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응급구조 교육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피부염이나, 2차감염, 습진과 같은 상처치료가 식중독과 같이 조심해야 할 응급처치교육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또 지역훈련의 짜여진 프로그램의 최종목적과 칼라와의 연결이 다소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를 뺐을 수 있다. 특히나 이미 파견된 아띠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 되었었다면 현지에서 겪는 적응기간을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지역Y는 Hub으로써 역할이 아닌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수업적인 면 말고, 공동체 생활을 미리 한 달 동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장점이라 본다. 확실히 전체훈련 말고 국내지역훈련에서 가까워지거나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파견된 후에 생길 법한 공동체이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다. 현지에 파견된 이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알아가야 한다는 압박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팀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던 1월의 한 달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쓰디쓴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미래의 다음기수와 칼라Y 그리고 지역 Y의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도이다. 이것이 단순히 네거티브 전략이 아님을 밝히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여담

여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 팀의 여담

담



(비자 연장)

2번째 비자 연장 신청하러 여행 막바지, 5월 1일에 콜롬보로 갔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콜롬보로 비자 연장하러 오라고 해서 솔직히 짜증이 났다.

여행 일정도 줄이고 가서 앉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15일 연장.

인터뷰도 없었다. 허탈했다.

남은 기간은 3달. Kallar로 돌아와서도 걱정이 많았다.

2주 이내에 다시 콜롬보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일정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도 어떻게 잘(?) 해결 되어서 지금은 남아있는 3개월간은 비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콜롬보에 갈 일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건 뭘까?



사진. 위, 수도 Colombo의 Emigration centre
아래 좌, 인터뷰 대기 중인 애리 단원, 이경 단원, 휘업 단원
아래 우, 인터뷰 대기 중인 애리단원, 마로단원

여담-이야기



(바티칼로아 도서관)

지난 달 바티칼로아 여행 때 우연히 바티칼로아 Public Library에 한국인 여자분이 한 분 계신 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근데 그게 코이카 단원인 현근이형이 아는 다른 코이카 단원이셨다.

우연 참.

그래서 우리 Kallar YMCA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러 연락 드리고 갔었다.

가서 도서관도 둘러보고 설명도 듣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이런 저런 대화 하면서 여기에서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다가 올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많은 도움 주시고 맛있는 점심 대접 해주신 지연누나, 언니에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사진. 위, 바티칼로아 도서관로 가는 휘업 이경 애리 단원
아래 좌, 바티칼로아 도서관 중 어린이 도서관을 설명 중이신 지연 누나
아래 우, 도서관 견학 후 점심식사!!! 감사합니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3대 미스터리편

그 것이 알고 '싫'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의 풀리지 않는 3대 미스터리편

(첫 번째 이야기.)

‘전기세, 그 말 할 수 없는 진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3대 미스터리 편

4월 전기요금이 나왔다.

전기세를 본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사용량은 다른 집의 2배, 요금은 상상초월. 코디도 놀랐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집에서는 잘 안 쓰는 전기 밥솥, 전기 주전자, 냉장고를 쓴다고 해도 저번 달에 비해 훨씬 많이 나왔다.

갑자기 똥 전기량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빵 구우려고 갔다 놓은 오븐 때문인가?’, ‘단수가 계속 되자 계속 열어 놓은 수도 파이프 때문에 모터 같은 것이 계속 돌아갔나?’, ‘쥐가 전기선을 갉아 먹었나?’, ‘새로 바꾼 전기 주전자 때문인가?’, ‘우리가 밥솥 코드를 안 뽑고 보온으로 해뒀나?’, ‘검침원이 잘못 적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오븐은 10기들도 썼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엄마도 아무리 많이 써도 이 정도는 안 나왔다 하고 파이프 열어두어도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가 안 나오고 코드는 밥이 다 되면 바로 바로 뽑았다.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다. 이번 달 최대한 아껴서 써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뽀

(두 번째 이야기.)

‘물 절도 사건의 진실?’.

단수가 잦아졌다.

다행인건(?) 완전 단수가 아니라 오전에는 나오다가 점심 준비할 때쯤 끊긴다는 사실이다. (어느 하루는 아침에 씻는데 끊겼다.)

그전에도 종종 단수가 됐었지만 다음날이면 늘 물탱크가 흘러 넘칠 정도로 다시 차곤 했다.

그런데 5월 말 어느 날부터인가 물이 넘치는 소리는 커녕 물이 차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그렇게 옆집 물을 몰래 몰래 절도해다 쓰기를(사실 허락 받았다.) 일주일쯤, 마음 편히 씻지 못하고, 밥도 하기 무서워지고(덕분에 많이 얻어 먹으러 다녔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도 마음조리며 하던 우리는 물탱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물탱크에 구멍이 났나?’, ‘물탱크 물 나오는 구멍에 뭐가 막혔나?’

온갖 상상을 하던 차에 집주인 할머니가 원래 4월부터가 물 수위가 낮아서 물이 잘 안 찬단다.

그래도 사람을 한번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물탱크를 보러 사람이 왔고, 물탱크를 본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물탱크에.....!!!!

(두 번째 이야기.)

‘물 절도 사건의 진실?’.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3대 미스터리 편

‘머피의 법칙’ - 자기가 원하는 것 과 반대로 꼬여가는 것.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있었다.

고장 나서 말 안 듣던 물건도 수리기사 오면 이상하게 잘되는 것과 같이
물탱크를 확인하러 사람이 오자 거짓말 같이 물이 가득 차있었다.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가?)
그 사람이 물이 가득 차서 물탱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다음날까지 다 쓰고 비워두라 하고
바람처럼 유유히 사건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그 많던 동글(무선 인터넷)은 누가 다 썼을까?’.

라온아띠 11기
스리랑카 칼라팀 3대 미스터리 편

스리랑카에서 우리는 동글이란 무선 인터넷 장치를 쓴다.

USB처럼 생겨서 컴퓨터에 꽂으면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장치이다.

한 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량은 8GB. 인터넷만 한다면 넉넉해 보였다.

3월에는 한국에서 막 쓰던 습관이 남아있어 생각 없이 쓰다가 좀 일찍 다 써버렸다.

하지만 4월에는 한달 동안 쓰고도 조금 남았었다.

그런데 5월에는 첫 4GB 충전 때는 그럭저럭 썼었다.

그런데 두 번째 충전 때는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훌훌 닳기 시작했다.

누가누굴 비난조차 할 수 없었다.

죄인이라도 된 듯 모두 함구 했다.

우리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각자 모두가 찢리는 구석이 있었으리라.

다만 모두 무언의 약속을 했으리라 믿는다.

다음 달에는 최대한 아껴 쓰리라.

동글이 풍족한 다음 달을 기대해 보리라.

역담

살짜 공개하는 일상을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콜라닭과 함께!
2. 새롭게 시작한 칼라농장 - 콩, 가지, 호박, 당근, 고추, 토마토
3. 영화속 '주인공' 같은, 같이, 같게 귀여운 로산 (하는 짓 보면)
4. 8살 레한에게 씨름에서 진 모습. 울지말아요 그대
5. 푸시팜엄마네와 함께한 배삭뽀야데이(스리랑카부처님오신날) 여행
6. 배삭 여행도중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음료, 음식 등 들중 수박.
7. 배삭 여행중 만난 먹을 것을 나눠 주기 위해 깃발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들을 불러세우는 소년
8. 골목대장 사두새나와 이경단원
9. 빨래개는 가정적인 두 남자 단원.
p.s 관심 있으신 여자분들은 개인 쪽지 주세요.
10. 애리 단원과 아티스쿨 학생인 프레스넛과 두산넛
11. 웃는 모습이 닮은 듯 한 애리 단원과 뜨비니

역담

살짜공개하는 일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옆집 덩성 머틴 18번째 생일, 케익 커팅 후 서로 먹여주는 전통이 있다.
2. 머빈 생일에 교회 유스들과 함께 한 축하 기도시간
3. 아티스쿨에서 이경 단원과 아이들
4. 역시 아티스쿨에서 다같이 휘업 단원 과롭히는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현근이 형의 두 번째 방문.. 마침 집에 놀러온 비두 시니와 사두 새나
2. 사두 새나와 비두 시니
3. 9기들의 엄마 아난디 엄마네 방문.
4. 락시카, 레한, 이경 단원 그리고 애리 단원. YMCA 놀이터에서

연말

충격과 감사의(점심 해결)

힌두 축제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모든 칼라 여자들이 모인 듯한 퍼레이드
2. 등에 바늘을 꿰어 다른 한명이 잡아당기며 퍼레이드 하는 의식
3. 위와 동일,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인다.
4. 위와 동일 하나 사람이 잡아당기는 대신 공중에 매달려 날개짓을 하듯이 퍼덕인다.

요망

충격과 감사의(점심 해결) 힌두 축제



위 축제기간에 직접 준비해서 무료로 나눠주던 과일 주스, 도서관 기금 모금을 하며 지친 우리에게 최고의 음료!



위, 힌두 축제에서 밥 나눠주는 나무 밑에 모인 사람들



오른쪽, 축제 준비하는 동네 청년들



위, 힌두 축제에서 만난 친구들.



위, 힌두 축제에서 만난 세상 다산듯 한 표정의 꼬마

역담

350 PPM 준비하면서



350PPM 준비하면서 왼쪽 위 부터 시계 방향으로

1. 음식을 처리 통 구하는데 큰 도움 준 Mikreen과 가족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는 바이다.
2. Mikreen과 드럼통 구하고 밀 부분 절단 후 한 컷.
- 3.4. 드럼통 밑 바닥 올려주시던 철공소 아저씨. 센스도 대박
5. 게릴라 가드닝을 위해 45km나 떨어진 바티칼로아 인근 꽃 집으로 꽃 가격 알아보러 갔을 때.

역망

5월 1일 콜롬보 비자 연장 & 노동절



1.



2.



3.



4.



5.



6.



7.



8.

1. 콜로모로 비자연장 하러 갔다가 재형이 형 집에서 먹은 새우, 맥너겟, 맥주, 예기 때마침 노동절이라 피자헛 KFC 다 닫고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에게 고마운 한편 뭔가 찝찝했다. 노동절에 유일하게 연 곳이라니!
- 2, 3, 4, 5, 6 그날 밤을 함께 한 휘업 단원 재형이형 성희형 이경단원 그리고 귀염 터지는 정진이
7. 재형이형네서 피자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된 노동절 퍼레이드
8. 노동절 집회 했던 장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의 집회와 퍼레이드였다.

모방

체면 따윈 개나 쥐버려



위, 꽃 사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열대과일 먹는 애리단원(좌), 이경단원(우)



아래, 망고를 갈비처럼! 마로단원



위, 배삭 여행 중 길가에서 나눠주는 차 마시는 이경단원(좌), 애리단원(우)



힌두 축제에서 점심 먹는 애리단원, 이경단원



킹 코코넛 마시는 애리단원



배삭 여행 중 갖길에 자리 펴고 아침 먹는 휘업 단원

(마로 단원)

뿌리 내린 5월

5월에 뭘 했나 생각해 봤다. 특별히 눈에 띄게 한 것이 없었다. 여행 갔다 비자 연장하고, 와서 보고서 쓰다가, 유스 시작하고, 배식 때 놀러 갔다가, 힌두 축제 즐기고, 중간 평가 준비하면서 350PPM 준비 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프로그램 이라던지 그런 것 들은 없어 보여서 절망하고 있던 와중에 대나무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다. 어느 대나무 종류는 씨를 심고 4년 동안 3츠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루에 30cm 가 넘게 자란다고 했다.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 이란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나는 '뿌리를 내린 달' 이라고 생각했다. 350PPM 캠페인도 준비하고 유스도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중간 평가 준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피드백 하면서 남은 2달에 무럭무럭 자라기 위한 뿌리를 내린 달. 우리가 내린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는지, 무럭무럭 자랄 만큼 깊게 내려졌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실패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다른 뿌리는 이곳에서의 생활이다. 완전히 뿌리 내리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다는 확실히 뿌리 내린 것 같다. 사람들이랑도 많이 친숙해졌고 언어도 편해지고 돈도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느껴진다. 6월 350PPM 과 여행으로 한 달이 흑 가면 마무리 하는 7월이다. 돌아간다는 사실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도 작별한다 생각하니 더 정이 가고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 친숙해지고 친구 같아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그 보다 더 먼 훗날에 애들은 어떻게 자라 있을까? 애들은 날, 우리를 기억해 줄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5년 뒤쯤에 다시 와보고 싶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달 느낀 것은 변화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특히 코디와의 관계. 부딪혀서 이기려던, 사람을 바꿔보려던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뀐 것 같다. 좋다. 틀린 방법, 잘못된 방법은 아니니깐. 이것도 적응의 뿌리 내린 것 같다. 아무튼 세계테마기행에서 나왔던 할머니의 말이 생각난다. '미워한다고 달라지나요?'. 아무튼 이런 마찰들을 통해 느낀 것은 혼자만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갔어도 되는 건데 말이다. 그리고 완전히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난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완전한 이해라는 것이 불가능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비난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또 (=) 이번 달 배식 여행을 통해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어쩌면 나만 잘 모르는, 잘 즐기려 하지 않는 베푸는 즐거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라고 깃발 흔들며 지나가는 차들을 멈추게 하고 음식, 음료 등을 나눠 주는 것을 보고 얻어 먹어서 좋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했다. 나는 머리로 는 저 즐거움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저렇게까지는 모르고 있는 듯 싶다. 아는 사람에게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까지 저렇게는 안 하니깐 말이다.



사진. 집 앞 거대 망고나무에 열린 첫 망고. 사랑스럽다. 무럭무럭 자라라

(애리 단원)

‘호박죽’

5월에 스리랑카에 온 후 처음으로 아팠다. 첫 번째 여행을 갔다오고, 한창 4월 보고서를 준비할 기간에 아파 울산 물회 사건 이후 (국내 지역훈련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물회를 먹고 아팠다.), 오랜만에 몸이 안 따라줘서 팀원들에게 미안했다. 단순 몸살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지만, 이번에 온 몸살은 이제까지 왔던 몸살 중에 상위클래스에 들 정도로 오한과 근육통이 심했다. 3일동안 방에서 잠만 잔 것 같은데, 간간히 먹었던 것이 이경 언니 표 호박죽이다.

그렇다. 이번 개인 소감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경 언니를 위한 것이다. 이제 호박죽을 먹을 때 스리랑카에서의 몸살과 이경 언니가 생각날 것 같다.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달디단 호박죽도 아니었지만, 호박에 비타민이 많으며 고생해서 끓여준 이 스토리가 있는 호박죽이 정말 맛있었다. 언니 인생에서 처음 끓여줬다는 이 호박죽을 내가 먹게 되어 참 행운이었고, 아프다고 챙겨준 언니, 그리고 보고서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도 쉬엄쉬엄 하라는 오빠들을 만난 것에 정말 감사했다.

‘마르다무네’

마르다무네는 페리아갈라의 옆 마을이다. 칼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마르다무네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칼라와는 달리 상권을 장악해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간혹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상권이 발전해있기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르다무네를 많이 갈 수 밖에 없었다. 무엇을 구하기란 어려운 칼라와 달리 필요하다 싶은 것은 마르다무네에 있었다. 350PPM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철제 드럼통, 목재, 페인트 등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을 마르다무네에서 구할 수 있었고, 조심하라는 약평(?)과는 달리 친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마르다무네에서 친절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마르다무네를 갈 때면 우리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났다. 그분들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물건들을 구할 수 있었다. 어느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가 좋지 않고,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를,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대하듯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나라였던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들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사라진 채 내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를 살 수 있는 돈을 번 좋은 나라로 기억되고 있었다. (뒤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이는 우리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을 거라 추측된다.) 좋은 기억이 있기에 그 나라가 좋고 그 나라에서 왔더니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 친절은 돌고 돈다. 이제까지 나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었다. 불공정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만 인식할 뿐, 얼마나 그것을 위해 행동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받은 친절, 잊지 않고 이제는 행동하겠다.



사진. 뜨비니와 ‘함께’ 자전거 타며 한 컷

(애리 단원)

‘포기’

항상 이곳에 온 후 바로 단박에 해결되는 일이 없었다. 스리랑카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연장부터 생활 속에서 물사용까지, YES보다는 NO가 많았던 순간들이 허다하다.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버틸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았던 내 자신이 있었기에 버텼던 부분도 있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고 계속해서 방법을 구하니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사실 5월보다 더 레벨이 높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에서 거대적수를 파괴하면 더 큰 보상을 얻듯, 최고의 방법인 죽보를 보지 않고 실패해도 게임을 다시 켜서 다른 전략을 피는 차선책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그럼 뭐, 8월에는 집에 돌아갈 때쯤,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

‘인간은 재물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저축한다. 그날의 기억밖에 없는 삶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삶보다 슬프다.’

벌써 90여일이 흘렀다.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도 늘어났다. 생각해보면 지난 3개월동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기계문명을 내려놓고 사람을 접하는 빈도가 높아져서일까 마치 6개월에 있어야 할 일들이 3개월동안 압축적으로 일어난 느낌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야속하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억을 남기고 다른 모든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그 러기에는 라온아띠의 이름표를 단 지난 3개월이 참으로 소중한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미 어떤 기억들은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날의 기억 밖에 없는 삶은 슬프다고 하지 않던가. 이곳에서의 사건들과 그것에 따른 그때그때의 생각, 열심히 기록하고 기억해보겠다.



사진. 뜨비니와 ‘함께’ 자전거 타며 한 컷

(회업 단원)

최악과 최고의 동네 칼라(3개월 살았으면 이제 말해도 된다.)

칼라에서 생활은 서울 부산 간 명절날 국도 운전이라고 해야 될까. 시원하게 땀 흘리는 길 하나 없이 정체되었다가 다시 조금 풀렸다가 뭐 이런 느낌의 생활이다. 칼라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페리아칼라 사람들의 대화스타일 때문이다. 언제나 사람들의 대답은 YES. 여기에 속고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페리아칼라 주민들과 수 차례 회의를 조율하고 확인하였지만, 당일 날 아무 통보 없이 취소해 버리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아니면 계획된 일정이 하루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변경되기도 한다. 이럴 때면 더운 날씨에 온몸의 힘이 꺾빠지곤 한다. 처음 페리아칼라에 왔을 때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대답에 마치 나는 문제해결사가 된냥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다. 하지만 1달, 2달, 그리고 3달째 생활을 해보니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좋아서라기보단 YES가 어떨 땐 NO라는 대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다 보니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상대로 한탕하려고 하는 건가. 도무지 분간이 서질 않는다. 이걸 좀 더 슬픈 이야기인데 음식가짓수도 많지 않아서 5개월 동안 스리랑카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적도지방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음식도 다양하다는 어디에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는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최고의 나라이기도 하다. 신앙적으로 많이 겸손해질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저돌적인 기질 덕분에 마을에 축제가 빈번하게 있는 편이다. 축제에서 댄스타임이 있기도 하는데, 막춤이라도 상관없다. 그저 몸가는대로 몸을 맡기면 여기가 클럽인지 내 집 안방인지 구분이 안될 만큼 빠지게 된다. 특히 사람들의 유머감과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 덕분에 쉽게 이 마을에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 색깔, 풍경 등을 보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 덕분에 경험적으로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 차례 직접 찾아가고, 프로젝트를 몇 번이고 점검하면서 4명의 단원들이 어떻게 조율하면서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작은 시골마을에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한마디로 이곳은 야생이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부단히 칼을 갈아야 한다. 외국인이기에 관심 받는 것도 있지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 칼라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고민해본다.



위에서부터: 첫번째, 이곳 사람들에게 춤이 빠지면 쉽다. 마을 주민들과 춤 한바탕 두번째, 나의 유일한 교통수단 자전거 이다. 화이트보드, 샵, 주전자 등 모든지 실을 수 있다. 세번째,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있다.

망고가 익어가는 5월
개인 에세이



위에서 아래로

1. 배삭 여행 때 연꽃 들고 찍은 사진
2. 아티스쿨 도중에 칠판 옮기다 한 것.

그래도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벌써 5월이 끝났다. 시간이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지.. 정말 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 밤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기분이 하락되면 X를 그으면서 마음을 다독인다.

하루는 Children Club을 하는 날이었다, 그날은 시쓰기 활동이었다. 미끄럼틀에 누워 친구를 주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이들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주책 맞게 눈물이 났다. 시는 완성을 못했지만, 처음으로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4월 달에 아티스쿨이나, 칠드런클럽을 시작할 때는 매시간 긴장도 되고 아이들이 몇 명이 올까 기대와 좌절의 연속이었는데, 이젠 그런 생각도 없이 오늘 하루 재밌었으면 성공이다. 그리고 요즘은 매일 오늘 아이들이 정해져 있고, 장난치고 빠지고 화해하는 걸 반복하다보니, 더 친해질 수 밖에 없다. 서로 못잡아 먹어서 으르렁대던 코디 빈센스도, 한바탕 싸우고 나서부터 서로 점점 나아진다.(진짜다)

요즘은 얼마 남지 않은 매일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내일 하루도 새로운 만남과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꿈꾼다.

(이경 단원)

5월 달이 재밌었던 이유에는?

1. 뿌리의 덩

5월 첫 췌주에 알아버린 나의 힐링푸드 뿌리(음식이름). 살쨍다는 구박을 참으면서까지 먹었던 쫄깃한 호떡같은 빵에다가 알싸하고 고소한 삼불을 곁들여 먹으면 진짜 계속 입으로 들어간다.



사진. 베삭 여행 때 푸시팜 엄마네 가족과 함께

2. 인도 Aunty와 Uncle

단골가게 푸쉬팜엄마의 인도에서 온 가족.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아침 드나들면서 팀원들 몰래 뿌리를 야무지게 먹었다. 뽀야데이 가족여행에 슬쩍 무임승차를 하고 aunty와 uncle에게 가족의 비밀도 듣고, 인도에 가면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마지막 인사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Aunty와 Uncle.

3. 힌두 축제 모금행사.

내가, 그림(페이스페인팅)으로 돈을 번다는 상상만으로도 내심 기분이 좋았던 행사. 다만 A/S가 되질 않아... complain이 들어왔지만. 서비스 하나는 확실했다고 자부한다. 원래 아이들의 얼굴에 그리지만, 어찌됐는지 페이스페인팅이 성인 남자들의 팔목에, 팔뚝에, 손등에.. 문신의 형태가 되버렸다. 가끔 남자무리들이 와서 목덜미에 그려달라고 하지 않나,.. 아, 힘들었지만, 어린이도서관 홍보도 하고 우리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코디나, 커미티멤버 저스틴, 도서관사서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넷만 하는게 아니라. YMCA스텝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다.



사진. 힌두 축제 때 도서관 기금 마련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5월
망고가 익어가는
개인 에세이

5월달이 재밌었던 이유에는

4. 공부가 취미인 수가타.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 수다를 떨다가 번호교환을 하고, 다음 주에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 수업마치고 바티칼로아에서 칼라까지 온 동갑내기 친구. 버스에서 만난 뒤로 처음 만난 우리는 공복인 상태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함께 요리하길 청했고, 수가타는 처음으로 우리팀원들을 만났지만 함께 요리를 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데려주다가, 아주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았다. 수가타는 지금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6개월뒤면 영국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매월 조금씩 돈을 부쳐달라고 했다. 나는 아.. 이대로 친구를 잃을까봐 겁이 났다.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때문에 접근을 했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돈은 안돼, 나도 학생이야. 돈이 없어. 다른 거 도와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자. 이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버스가 올 때 쯤 수가타도 미안했는지. 미안해. 빨리 여길 떠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괜찮아. 이해해. 마음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찝찝했다. 다음에 연락이 안와도 실망하지 말자. 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연락이 끊어지진 않았다. 아직까지 다음 만날 약속을 잡진 못했지만, 그날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쉽게 연락을 할 수 없다.



사진. 수가타와 함께한 요리시간

5. 홍삼의 기운.

하루는 프레지던트가 한국에서 몸에 좋은 약을 가져왔는데 너무 쓰다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것은 홍삼이었다. 몸에 좋은 홍삼.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안 나아서 몸보신 할 겸 하나를 용기있게 뜯어서 마셨다. 역시 홍삼은 밤에 효과가 짱이었다. 그날 뒤에 흘린 것처럼 뽕뽕 입담이 터져 나왔다. 2개월 동안 내가 이런적이 있었나 할 정도였다. 그 뒤로 카페인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걸 깨닫고, 가끔 섭취하고 있다. 팀의 즐거움을 위해서(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사진. 아띠 스쿨 미술 수업 준비하며

망고가 익어가는 5월
개인 에세이

코

트

6월에 봐용